

스리랑카의 농업현황과 정책 *

신 세 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1. 스리랑카 일반연왕

1.1. 개왕

스리랑카의 공식명칭은 스리랑카 민주사회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로 인도남동쪽 적도 부근에 위치한 6,600km²의 작은 도서국이다. 원래 수도는 국가 중앙에 위치한 캔디였으나, 1985년 콜롬보를 행정수도로 이전하면서 인근의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코테를 입법과 사법수도로 정하였다.

일찍부터 인도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벽화, 조각 및 건축물에 각종 힌두신화, 베단타 철학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16세기부터 1948년까지 세 나라의 식민통치(1505년~1658년간 포르투갈, 1658년~1796년간 네덜란드, 1796년~1948년간 영국)를 받은 국가로 1972년 영연방 자치국에서 독립공화국을 선포하고 국호도 스리랑카 공화국(Republic of Sri Lanka)로 변경하였다. 1979년 개헌을 통해 국호를 다시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으로 변경하였다.¹⁾

독립 이후 식민지 시절 영국이 우대하였던 소수 타밀족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치면

* (selynn@kiep.go.kr).

1) 외교부 스리랑카 개관.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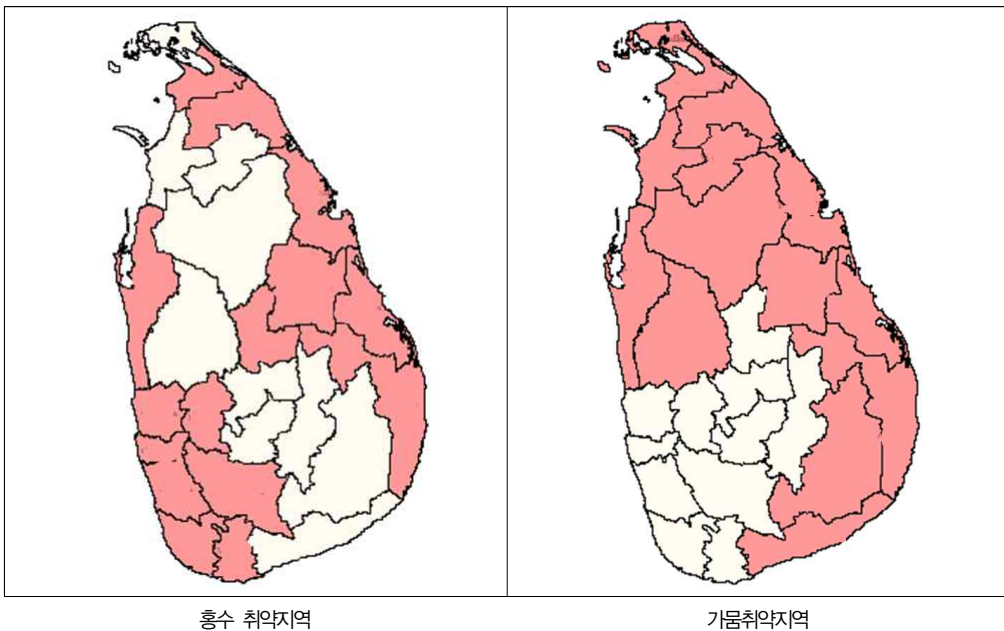
서 타밀족의 분리운동이 일어났고, 1983년부터 2009년까지 내전이 발생하였다. 내전 당시 타밀족 민간인의 학살 의혹(4~10만 명 사망 추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등 싱할리족과 타밀족 간 갈등이 있었으나, 현재 시리세나 정권이 취임 이후 북부 타밀족에게 토지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등 평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1.2. 자연조건

연평균기온이 26℃~30℃인 열대도서국가로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기후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 지역의 습도가 매우 높으나 기온이 온화하며 지역에 따른 연간기온의 변화도 작다. 5~9월에는 남서 몬순이 불고, 11~3월에는 북동 몬순이 부는데, 전자는 남서부에 다량의 비를 내리게 하여 농작물의 성장을 돕는다.

강수량은 몬순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강우량과 시기가 큰 차이가 난다. 수도 콜롬보의 기온은 24℃~31℃이며, 연강수량은 2,365mm(93inch)이며 기온이 가장 낮은 12~1월의 평균기온은 25.5℃, 기온이 가장 높은 4~5월의 평균기온은 29℃로 연중 고른 기온분포를 보인다. 동북해안은 비교적 건조하여 연강수량이 약 600~1,800mm, 남서부지방은 약 2,000~4,000mm이나, 중부지방은 습윤지대로 약 5,000mm

그림 1 스리랑카의 자연재해 취약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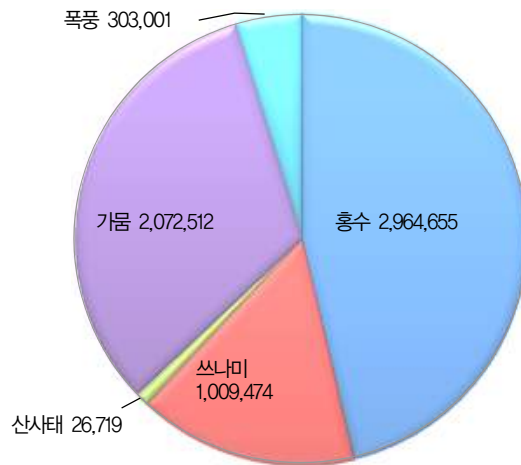


자료: Sri Lanka Disaster Knowledge Network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편집함.

이상의 강수량을 보인다.²⁾

몬순의 영향으로 인해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의 대부분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편이다. 남서계절풍으로 인해 남서부 평야와 산악지대에 많은 비가 내려 전화불통, 도로침수, 농작물 피해 등이 자주 발생한다. 홍수로 인해 중앙 산악지대와 남서부 지역의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총 강수량은 많으나 지역별, 계절별 편차로 인해 북부와 남동지역은 가뭄 문제를 안고 있다.³⁾

그림 2 1974~2004년간 스리랑카 자연재해 피해자 수



자료: 스리랑카 재해관리부(2016).

국토는 중남부 산악지대(Hill Country)를 중심으로 남부와 서부는 급경사, 동부와 북부는 대체로 완만한 평지로 구성되어 있다. 평야지대는 주로 해안을 따라 전개되며 북부지역에 광대한 평야가 있다. 전국토의 32%가 산림지대이며 경작 가능한 토지는 19%, 초원은 7%를 차지한다. 산지의 배후인 북동부는 강수량이 적은 건조지대로 불모지가 많으며, 전인구의 70%는 국토의 1/4인 남서부의 습윤지대에 밀집해 있다. 건조지대에서는 관개수로 및 하천을 중심으로 수도작 및 전답농업이 발달하였으며, 습윤지대는 전통적인 작물인 홍차, 고무, 코코넛의 주산지이다.⁴⁾

2) 외교부. 2010. 스리랑카 개관.

3) 스리랑카 재해관리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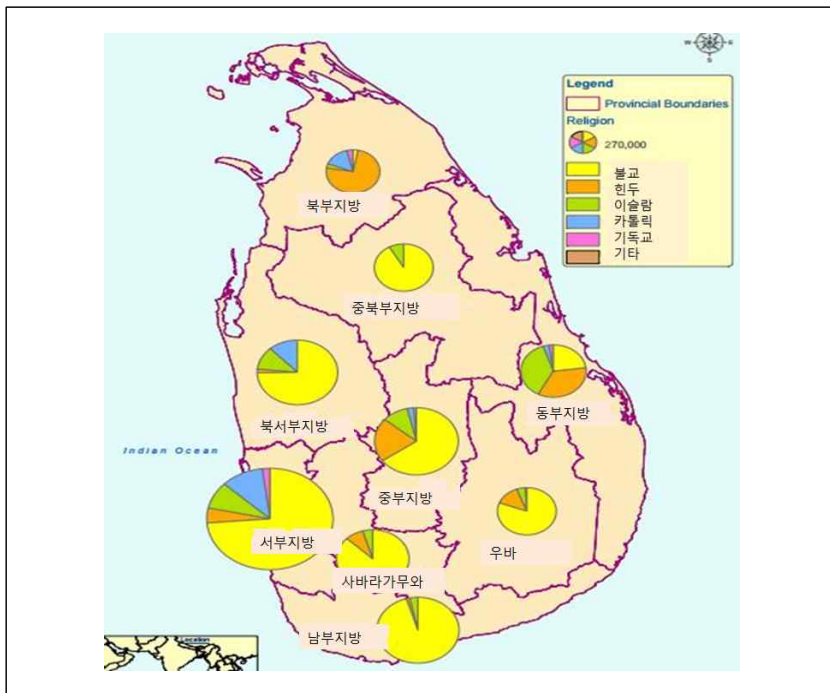
4) 외교부. 2010. 스리랑카 개관.

1.3. 인구구성

스리랑카의 인구수는 2015년 기준 2,100만 명으로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가 위치한 남서부에 거주하고 있다. 싱할라족 74.0%, 타밀족 18%(스리랑카계 13%, 인도계 5%), 무어족 7%, 기타 1%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이며 민족에 따라 종교도 분화 되어 있다. 불교도가 69%, 타밀어를 사용하는 힌두교도 15%, 기독교도 7%(대부분 로마 카톨릭교도) 및 무슬림이 8%를 이루고 있다. 불교의 대다수가 싱할라족이며 타밀족의 전통종교인 힌두교는 북부와 동부지역에 주로 밀집해 있다. 무슬림은 그 수가 많지 않으나 콜롬보의 Port와 Peattah지역의 상권을 차지하고 있다.⁵⁾

과거 헌법상 국민 70% 이상이 사용하는 싱할라어를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소수 타밀족이 사용하는 타밀어를 국어(National Language)로 규정하였다. 의회, 교육 및 법률 용어로 싱할라어 및 타밀어를 병용하되, 행정용어로는 싱할라어를 사용할 것을 명기 (다만, 동·북부지역에서는 타밀어도 행정용어로 병용가능)하였으나, 1987년 인·스평

그림 3 스리랑카 지역별 종교 분포



자료: 스리랑카 재정기획부 스리랑카 인구이탈라스 2012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가 재편집함.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6. 국가정보.

화협정에 의해 현재는 싱할라어, 타밀어, 영어를 모두 공용어로 인정하고 있다.⁶⁾

이러한 다민족 인구구성으로 인해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계 싱할라족(Buddhist Sinhalese, 74%)과 소수 힌두교계 타밀족(Hindu Tamils, 18%)간 27년의 내전이 발생하였다. 독립 직후부터 집권 싱할라족 정부는 싱할라어를 유일 공용어로 채택하고 싱할라족 우대정책을 펼쳤고 타밀족은 이에 반발해 분리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 반군간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된 1983년부터 오늘날까지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부상자,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1999년부터 내전 종식을 위해 애써온 노르웨이의 중개로 평화협상이 열리고 2002년 정전협정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는 2008년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타밀반군을 대대적으로 공습하였으며 2009년 내전 종식을 선언하였다. 내전 종식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가 2011년 해제되었으며, 현재까지 싱할라족-타밀족 간 갈등 해소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⁷⁾

1.4. 정치연왕

스리랑카는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정치체제를 채택하였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제한이 없으나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추천이 필요하다. 국회는 임기 6년의 단원제, 자유정당제로 통일국민당(United National Party, UNP)과 스리랑카 자유당(Sri Lanka Freedom Party, SLFP)이 양대 정당이 독립이후 교대로 집권해 오고 있다.

2015년 1월 실시된 대선에서 기존 집권당인 스리랑카자유당(SLFP)에서 탈당 후 범야권 후보로 출마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현재 정권은 안정적인 정국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 전 정권의 비리척결 및 대통령 3선 금지, 타밀족 등 소수민족 앞 권력 분배 등의 정치개혁을 추진 중이다.⁸⁾

1.5. 외교연왕

스리랑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1972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영연방을 탈퇴하고 공화국을 선언하였으나 독립 공화국의 자격으로 영연방에 계속 잔류하고 있다. 외교정책

6) 외교부, 2010. 스리랑카 개관.

7) 한국국방연구원 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6. 국가정보

은 비동맹 중립정책을 기조로 하나, 해외 원조를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편향적인 정책보다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인도와는 해양경계확정, 타밀족 문제, 영국통치 기간 중 유입한 인도인 처리문제 등 한때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였으나, 현 시리세나 정권은 타밀족 우호 정책을 실시하여 친(親) 타밀정권인 인도 모디정권과 우호관계로 전환하였다. 과거 사회주의와 비동맹 세력으로 활약할 당시에는 서방과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못하였으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지난 77년부터는 개선되었다. 내전으로 인해 악화된 외교관계도 현 정권이 타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어 개선되고 있다. 중국은 1957년 국교 수립 후 스리랑카에 대한 경제지원국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⁹⁾¹⁰⁾

2. 스리랑카 경제연망

2.1. 스리랑카 GDP 성장률 연망

스리랑카의 2014년 총 GDP는 약 788억 달러, 1인당 GNI는 3,440 달러로 중저소득국가(OECD 원조기준)에 해당한다. 내전 종식 이후 대규모 공공 투자 및 인프라 확대, 관광업 호조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타격을 받아 성장률이 3.5%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다음해 다시 높은 성장률을 회복하였다. 여전히 루피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농업 생산량 감소 및 이로 인한 민간소비 둔화 등의 경제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송금액 증가, 건설업과 관광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 1 스리랑카 성장률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성장률	5.95	3.54	8.02	8.4	9.14	3.4	4.46

자료: CEC(2016).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6. 국가정보.

10) 외교부. 2010. 스리랑카 개관.

2.2. 재정 및 물가

스리랑카는 낮은 소득 수준, 광범위한 탈세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12%) 도입, 금 수입관세(10%) 신설, 전자정부, 인터넷을 활용한 효율적 세금 수납 환경 구축, 토지임대세(15%) 도입, 통신세 인상(20%→25%) 등 세수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지출증가로 재정적자 문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 다만 국내 생산능력 확대와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세계식품가격이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 또한 1.7%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¹¹⁾

2.3. 무역 연망

스리랑카는 내전에 따른 산업기반 약화로 부가가치가 낮은 차, 섬유, 고무 등 1차 상품위주로 수출품이 구성되어 있다. 반면 석유 등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문제를 안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섬유 및 의류, 차, 고무제품, 보석류, 코코넛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유, 섬유, 기계 및 운송장비, 광물, 식료품이다.

주요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1년에는 최초로 수출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무역 확대를 위해 인도,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표 2 스리랑카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국내경제	GDP	억달러	594	675	749	795	863
	1인당 GDP	달러	2,874	3,239	3,574	3,768	4,061
	경제성장률	%	6.3	7.3	7.4	6.5	6.5
	국내총투자/GDP	%	30.6	29.8	29.6	29.8	29.9
	실업률	%	4.0	4.0	4.0	4.0	4.0
	재정수지/GDP	%	-6.5	-5.9	-6.0	-5.9	-6.4
	소비자물가상승률	%	7.5	6.9	3.3	1.7	3.4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6. 국가정보.

(계속)

	경 제 지 표	단 위	2012	2013	2014	2015e	2016f
대 외 경 제	환율(달러당, 연중)	SLRs	128	129	130	136	146
	경상수지	백만 달러	-3,981	-2,540	-2,018	-1,566	-1,745
	경상수지/GDP	%	-6.7	-3.8	-2.7	-2.0	-2.0
	상 품 수 지	백만 달러	-9,417	-7,609	-8,287	-8,867	-9,559
	수 출	"	9,774	10,394	11,130	11,275	11,891
	수 입	"	19,190	18,003	19,417	20,142	21,450
	서 비 스 수 지	"	1,262	1,180	1,880	2,221	2,548
	F D I 순유입	"	877	867	877	1,190	1,665
	유입	"	941	932	944	1,300	1,800
	유출	"	64	65	67	110	135
	외환보유액	"	6,378	6,611	7,316	6,554	· ·
부 채 현 황	정부채무/GDP	%	79.2	78.3	75.9	77.0	78.1
	국내정부채무/GDP	"	42.7	44.2	43.9	42.4	44.5
	해외정부채무/GDP	"	36.5	34.1	32.0	34.6	33.6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37,100	39,700	42,600	45,100	47,600
	총외채잔액/GDP	%	62.4	58.9	57.1	56.0	54.4
	단기외채	백만 달러	4,955	4,827	4,960	4,960	· ·
	외채상환액/총수출	%	11.2	11.1	12.7	11.5	11.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스리랑카 국가개황(2016).

2.4. 산업구조

스리랑카는 2015년 기준 서비스산업이 GDP의 62.8%, 제조업이 29.1%, 농업이 8.1%를 차지한다(CIA Factbook). 차(茶), 섬유, 의류 그리고 고무제품이 스리랑카 경제의 3대 축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청정해안, 열대성 기후 등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관광업 위주로 서비스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1978년 개방 이후 섬유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경공업 위주로 중공업은 기반이 거의 없으며 미국이나 EU로 수출하기 위한 의류산업이 주를 이룬다. 섬유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공산품 총 수출액의 60-70%를 차지한다.

한때 전체 GDP의 15%에 이르렀던 스리랑카 관광산업은 2004년 쓰나미, 내전, 해외 경기불황 등으로 침체되었다. 다만 2009년 내전의 종식 이후 관광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며, 스리랑카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FDI를 적극 추진 중이다.

오랜 내전으로 인해 인프라가 열악하여 전반적인 물류비용이 높다. 낮은 도로 포장률, 철도시설과 항만·공항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원자재 수급과 제품 수출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 인프라 구축이 현재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3 스리랑카 산업별 비중

단위 %

분류	연도		
	2012	2013	2014
1차 산업	11.1	10.8	10.1
- 차	9.7	9.5	8.8
- 어업	1.3	1.3	1.3
2차산업	30.4	31.1	32.3
- 제조업	17.1	17.1	17.2
- 건설업	9.1	8.7	9.7
3차산업	58.6	58.1	57.6
- 유통업	23	22.7	22.8
- 운송업 및 통신업	14.3	14.6	14.6
- 정부서비스	6.8	6.5	6.2

자료: 2014 스리랑카 중앙은행 연간보고서, 코트라 국가정보에서 재인용(2016).

3. 스리랑카 농업 연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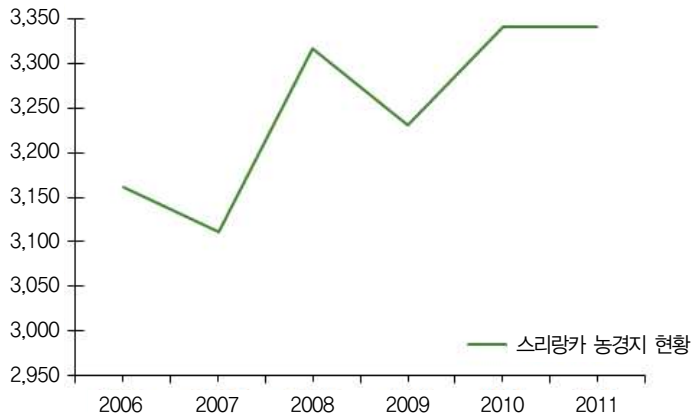
3.1. 농업 개황

스리랑카의 건조지대에서는 관개수로 및 하천을 중심으로 수도작 및 전답농업이 성행하며, 전체 인구의 60~70%가 거주하는 습윤지대는 전통적인 홍차, 고무, 코코넛을 주로 생산한다. 가뭄과 홍수, 산사태 등의 자연현상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조지대의 농업생산성은 습윤지대의 생산성 보다 낮아 지대별로 쌀 생산성은 약 25%, 집약도는 약 30%의 차이를 보인다.¹²⁾

12) ADB 2015-2016 임시 국가협력전략.

북부지역은 오랜 내전으로 인해 농경지가 황폐화되었으나 평화협정 이후 개간되면서 경작지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0년 296만 헥타르였던 스리랑카의 농경지는 2005년 323만 헥타르로 증가하였고 종전 이후인 2011년에는 334만 헥타르로 증가하였다. 이 중 대부분이 곡물 경작지로 2011년 기준 곡물 경작지는 218만 헥타르로 총 경작지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 스리랑카 농경지 현황(단위: 1000 헥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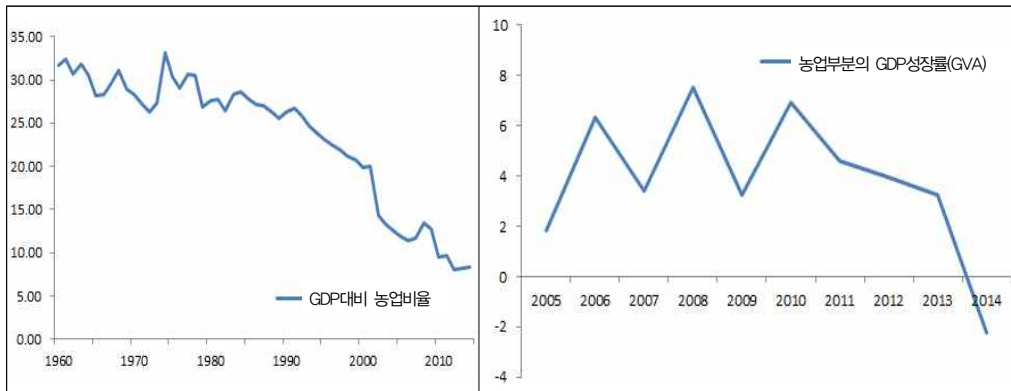


자료: 미국 농무부(2014), Knoema에서 재인용.

주요 수출물이 차, 코코넛 등의 플랜테이션 작물인 만큼 농업은 스리랑카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독립 직후 농업은 전체 GDP의 46%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28%, 2012년은 9.6%로, 2015년에는 8.1%(추정치)로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1990년대부터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한 농업의 GDP 비중은 내전 종식 후 인프라 개발로 인해 농촌 인력의 서비스업 및 제조업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

생산성 또한 매우 낮아 하버드 국제협력센터는 스리랑카 농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1/5, 서비스업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스리랑카의 농업 생산은 기계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인력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1998년 약 1만 5,000대였던 스리랑카 농촌의 농기계 대수는 2003년까지 약 3만대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1년에는 보유 농기계가 약 2만 5천대로 하락하고 나타나 인력 의존도가 오히려 상승하여 케냐 등 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지 못한 상태다.

그림 5 스리랑카 농업 GDP 현황



스리랑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세계은행(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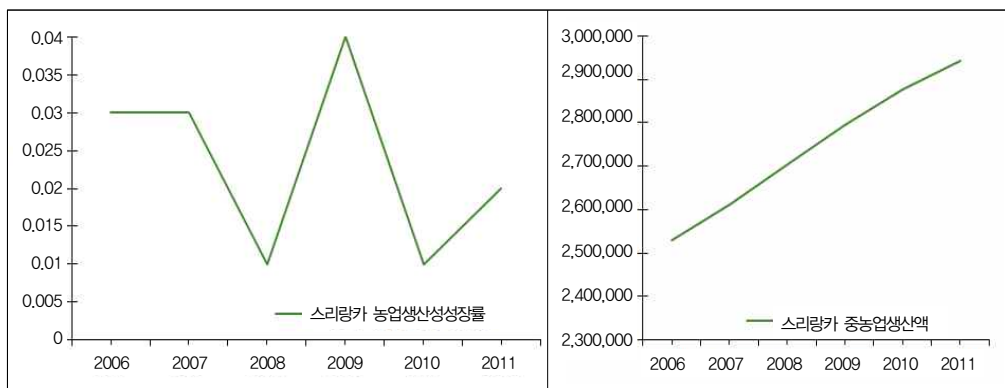
농업부분의 GDP성장률(총부가가치기준, %)

자료: CEIC(2016).

실제로 농업생산성장률은 최근 10년간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성장을 기록해왔다. 단, 더딘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수출 작물의 가격상승에 힘입어 총 농업생산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력의 타 산업 이동, 내전 종식으로 인한 농촌 지역 안정 등 생산성 향상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생산성 증가속도는 타 산업에 비해 더딘 편인데, 2011년 1.5%의 노동력이 농업에서 타 산업으로 이동하였으나 생산성은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노동력의 감소가 비공식부문(위장실업에 가까운 가족 농업종사자)보다 공식부문에서 더 크

그림 6 스리랑카 농업생산성 현황



스리랑카 농업생산성장률(%)

자료: 미국 농무부(2014), Knoema에서 재인용.

스리랑카 총 농업생산액(1000달러, 2004-06 고정환율)

게 나타나며 날씨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2011년과 2014년 사이 농업의 비공식부문 인력은 6% 감소하였으나 공식부문은 24% 감소하여 큰 차이를 보인 것에서 알 수 있다. 다만 농작물 생산기술 이전이 진행되고, 일부 특용작물의 수확량 확대기술이 전파되고 있어 농업에 유리한 토양에 기술이 접목될 경우 상품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3.1.1. 주요 농작물 생산·수출 연왕

스리랑카는 차와 고무, 코코넛 등 플랜테이션 작물을 주로 생산하고 있어 생산 농작물이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또한 관개시설과 농업기술 등의 더딘 발달로 인해 날씨가 한해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크다. 그러나 전반적인 농업생산지수는 2002년 대비 2014년, 53%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생산량이 가장 많은 쌀은 매해 날씨에 의해 생산량이 좌우되는 대표적인 작물이지만 내전 지역의 경작 확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량이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차의 경우 매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무는 2013년까지 2002년 대비 70%까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다시 2002년 수준으로 감소하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같은 차원에서 생산량이 크지 않았던 곡물(Coarse Grain)의 생산도 7배로 증가하였으며, 야채와 과일의 생산 또한 유통 인프라 확대와 시장접근성 개선에 힘입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 스리랑카 연도별 주요 농산물 생산지수

단위: 2007-2010년 생산량을 100으로 환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농산물생산지수	99.8	108.9	111.2	116.8	121.9	119.9
플랜테이션	98.5	104.2	105.8	106.7	99.4	98.2
차	93.4	106.4	105.1	105.4	109.1	108.5
고무	102	114	117.9	113.3	97.2	73.5
코코넛	102	95.8	99.1	103.8	88.7	101.3
쌀	97.6	115	104.1	102.8	123.6	90.4
채소	102.3	105.1	112.4	117.4	135.1	135.8

자료: CEIC(2016).

과거 인권탄압국가로 분류되면서 스리랑카는 농산물 수출에 제약을 받기도 하였으

나 내전이 종식되면서 안정적인 수출물량을 기록하고 있다. 주식인 쌀의 경우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어 수출물량은 미미하다. 농작물의 생산과 수출에서 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지만 코코넛과 향신료의 수출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코코넛의 경우 수출확대를 위한 품질관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고무의 경우 2014년 전년대비 25% 수출량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국가의 생산목표치가 낮게 설정되면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작물 외에 땅콩과 옥수수, 대두 등의 소수 작물들은 수출액은 크지 않으나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 스리랑카 연도별 주요 농산물 수출금액

금액: 백만 달러

상품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차 (톤)	금액	1,186	1,440	1,491	1,412	1,542	1,628	1,340
	양	289,594	328,034	323,012	319,946	319,673	327,342	306,966
고무 (1000톤)	금액	99	173	206	125	71	45	26
	양	56	52	43	37	24	16	10
코코넛(가공품 포함, 백만개)	금액	162	166	266	209	205	356	352
	양	367	251	386	351	379	716	552
향신료	금액	123	207	235	256	355	265	378
기타	금액	44	72	89	76	101	165	160
농산물	금액	1,829	2,306	2,528	2,332	2,581	2,794	2,482

자료: CEIC.(2016).

(1) 차

스리랑카는 세계 3위의 차(茶) 생산국으로 전 세계 차 수요의 19%를 충당하고 있다. 2014년 스리랑카 총 수출의 15%, 총 GDP의 2%정도를 차지하며 수출 2위 품목으로 관광수입, 해외 송금, 의류수출과 함께 스리랑카의 4대 외화 소득원이다. 차의 생산은 해발 2000피트의 저지대, 2000~4000피트의 중지대, 4000피트 이상의 고지대 별로 구별되며 해발 4000피트 이상의 고지대의 차가 품질경쟁력이 높다. 홍차 위주의 생산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 녹차, 인스턴트 등으로 상품범위를 넓히고 있다.¹³⁾

13) 스리랑카 수출개발청. 2016.

표 6 스리랑카 차 생산현황 및 생산비용

연도	재배면적(헥타르)	생산량(톤)	생산비용(Rs/kg)
1996	188,970	258,430	75.32
1997	188,970	276,860	83.64
1998	188,970	280,060	85.75
1999	188,970	283,760	100.82
2000	188,970	305,840	105.88
2001	188,970	295,090	113.39
2002	212,715	310,030	121.97
2003	212,715	303,229	126.72
2004	212,715	308,089	133.09
2005	212,715	317,200	149.13
2006	212,715	310,800	161.98
2007	212,715	304,600	210.75
2008	221,969	318,700	231.49
2009	221,969	290,000	269.01

자료: 스리랑카 차 위원회, 스리랑카 통계청

생산현황을 보면 차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90년대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재배면적 증가량에 비해 생산량 증가량은 적게 나타난다. 또한 생산비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96년 대비 약 3.5배 상승하였다. 생산비용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인데, 경쟁국인 인도, 케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생산되는 대부분의 차는 수출되는데 주 수출국은 러시아,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이다. 이들 국가의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스리랑카의 차 수출도 감소하여 2015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3.4% 감소하는 타격을 입은 상태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에 따르면 미포장 상태로 수출되는 차가 전체 수출의 52%를 차지하여 수출되는 차의 부가가치는 매우 낮은 편이다. 봉지 포장되어 수출되는 비율은 25%, 티백은 13%에 불과하여 스리랑카 내의 차 가공업은 생산에 비해 발달되지 못한 편이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스리랑카는 차 가공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다원 차원에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 ISO22000을 인증받아 생산하고 있으며 2008년 42개의 차 제조업체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인증서를 획득하여 국제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쌀

쌀은 스리랑카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지만 쌀의 자급자족은 여전히 스리랑카의 큰 목표이다. 주기적인 가뭄과 내전으로 인해 식량안보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1960-70년대에는 연평균 전체 쌀 소비의 40-50%에 해당하는 40만 톤을 수입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도 연평균 15만 톤의 쌀을 수입하였다.¹⁴⁾ 그러나 내전 종식 후 내전 지역의 쌀농사가 확대되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자급자족을 달성하였을 뿐 아니라 수출도 시작할 정도로 상황이 호전되었다.

현재 스리랑카는 연평균 350만~450만 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내수용으로 소진된다. 그러나 식량공급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쌀의 생산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있어 식품가격이 불안정한 편이다. 때문에 때때 불안정한 쌀의 생산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스리랑카 정부는 때때 쌀 수입 관세를 조절하고 있다. 최근 2014년에는 가뭄으로 인해 전년대비 쌀 생산이 27% 감소하면서 쌀 가격이 31% 폭등하였으며, 수입쌀에 대한 관세 또한 하락하였다. 하지만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쌀의 생산이 증대하자 스리랑카 정부는 수입관세를 작년 대비 43% 상승시키는 등 관세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¹⁵⁾

쌀 자급자족률을 보면 스리랑카는 이미 2005년에 자급률 100.65%를 넘어서고 2010년에는 113.91%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반복적인 가뭄을 통해 해에 따라 쌀의 완전한 자급자족은 아직 달성되지 못한 상태이고 흉년으로 인해 곡물가가 폭등했던 2007년에는 이와 관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쌀의 자급자족은 아직까지 정부의 우선순위이며 정부는 쌀 경작지 확대, 종자 개량 등을 통해 2020년까지 현재 1.7배 가량인 820만 톤의 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⁶⁾

표 7 2006~2009년 스리랑카 쌀 가격 변동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생산량(백만 톤)	3.65	4.3	3.89	3.85	4.62	3.38	4.82
공개시장가(루피/부셸)	671	628	628	624	649	855	860

자료: CEIC.

14) FAO, 1993,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15) FAO, 2015, Sri Lanka increases paddy procurement price and reduces wheat flour price.

16)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2010, Sri Lanka -The Emerging Wonder of Asia Mahinda Chintana: Vision for the Future.

(3) 코코넛

코코넛은 스리랑카의 주요 플랜테이션 작물로 스리랑카 농업생산의 약 12%를 차지한다. 생산량 대부분을 해외로 판매하는데 과육은 세계 4위의 수출국이며 코코넛섬유 수출은 세계 1위이다. 전체 경작면적은 39만 5,000헥타르로 2004년부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생산량 또한 매년 차이는 있으나 연간 약 25억 개를 생산하고 있다.¹⁷⁾

생산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용은 2009년 kg당 6124루피로 96년 대비 3.2배 증가하여 다른 플랜테이션 작물과 마찬가지로 큰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는 산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임금 위원회가 종사자들의 임금을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이다.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현재 코코넛개발청(Coconut Development Authority), 코코넛경작위원회(Coconut Cultivation Board), 코코넛연구소(Coconut Research Institute)를 세워 주요 작물로 관리하고 있다. 코코넛 수출 시 코코넛개발청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품질 유지를 위해 코코넛 생산과 가공에 있어 필요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표 8 스리랑카 코코넛 생산현황 및 생산비용

연도	재배면적(헥타르)	생산량(백만개)	생산비용(Rs/kg)
1996	-	2,622	1,885
1997	-	2,755	1,991
1998	-	2,546	2,294
1999	-	2,631	2,460
2000	-	2,565	2,667
2001	-	2,700	2,706
2002	-	3,096	3,162
2003	-	2,905	3,219
2004	394,836	2,459	3,584
2005	394,836	2,512	4,135
2006	394,836	2,590	4,774
2007	394,836	2,515	4,870
2008	394,836	2,684	5,436
2009	394,836	2,805	6,124

자료: 코코넛개발청, 스리랑카 통계청

17) 스리랑카 수출개발청, 2016.

(4) 향신료

향신료는 스리랑카 농산물 수출의 15% 정도를 차지하며 시나몬, 후추, 정향, 카다멈, 육두구 등을 수출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시나몬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정부는 2011년부터 시나몬 플랜테이션농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나몬을 차에 이은 제 2의 농업 수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수출 10억 달러를 목표로 세웠다. 2015년까지 3분기까지 향신료는 차, 의류, 코코넛 다음으로 많이 수출되었으며 8,6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바닐라와 생강, 울금 등의 기타 향신료 또한 경작,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신료가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향신료의 수출형태는 대부분의 다른 농산물처럼 미가공 원료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을 수출하기 위해 정부는 가공업체들의 HACCP과 ISO, GMP 등의 식품안전 인증을 추진 중이며 농가에 생산·가공 방법에 대한 교육 또한 병행 하고 있다.¹⁸⁾

(5) 과일 및 채소

스리랑카의 연간 과일과 채소 생산량은 90만 톤으로 기온이 높지 않은 중부지역의 산지에서는 당근, 릭, 양배추, 콜리플라워, 오이, 콩 등이 생산되고 저지대와 덥고 습한 지역에서는 칠리와 양파, 호박, 멜론,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과 채소가 생산된다. 대규모 경작 보다는 주로 경작지가 1헥타르를 넘지 않는 소규모 농가들이 독립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시장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상품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계약재배방식을 장려하고 있어 민간의 상품작물 재배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신선식품은 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몰디브, 영국 등으로, 가공식품의 98%는 유럽으로 수출된다.¹⁹⁾

(6) 유기농산물

상업적 유기농산물은 1987년 스리랑카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비중은 아직도 미미하여 유기농산물이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5%에 불과한 상태다 (Willer, Lernoud, and Kilcher 2013). 국가농업정책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농산물 생산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농업개발부와 수출개발위원회, 농업수출부, 코코넛 연구소, 코코넛경작위원회, 스리랑카표준위원회, 농업부, 차연구소 등의 정부기

18) 스리랑카 수출개발청. 2016.

19) 스리랑카 수출개발청. 2016.

관에서 진흥책을 실시 중이다. 또한 많은 NGO들 또한 유기농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스리랑카 유기농업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²⁰⁾

3.1.2. 스리랑카 농산물 수입 연왕 및 정책

스리랑카는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일부 농산물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감자, 마른 고추 등과 같은 농산물은 식품수입상만 수입이 가능하다. 2003년 WTO에 수입쿼터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신고한 바 있으나, 파키스탄과 FTA 체결 후 2014년 5월부터 비스마티 쌀과 감자에 한해 쿼터를 적용 중이다. 또한 쌀, 캐슈넛 등의 품목은 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 수입에는 수입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자국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쌀, 감자, 양파 등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²¹⁾

농산물 관세정책은 정부의 물가안정을 통한 소비자보호와 가격 보호를 통한 생산자 보호라는 상충된 목표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해왔다. 이러한 국내산업 보호정책으로 인해 스리랑카의 농산물, 식품 수입액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스리랑카 연도별 미가공 농산물 수입 비중은 10% 초중반으로 자국 작황상황에 따라 매년 차이가 나며 식품의 경우에는 1%대를 유지하고 있다. 쌀의 경우 매해 경작량에 따라 수입량에

표 9 스리랑카 연도별 농산물, 식품 수입 비중

단위: %

수입품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가공농산물	15.75	15.35	13.3	11.5	12.1	13.21
식품	1.16	1.45	1.61	1.34	1.26	1.56

주: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CEO(2016).

표 10 스리랑카 연도별 주요 농산물·식품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상품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식음료	933	1322	1567	1304	1368	1634	1628
- 유제품	165	259	345	307	291	339	251
- 밀가루	2	1	14	5	2	2	2
- 쌀	23	59	19	25	18	282	135
- 설탕	220	365	428	347	291	257	254

자료: CEO(2016).

20) 아시아개발은행(ADB). 2015. Organic agriculture and post-2015 Development goals.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6. 국가정보.

차이가 나고 유제품의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입량은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3.1.3. 스리랑카 농업 종사자 연왕

농업이 스리랑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10.1% 수준으로 높지 않으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4%에 달한다. 다만 생산성이 낮아 스리랑카 농수산업 성장률은 스리랑카의 평균 성장률인 7.5%에 못 미치는 4.6%에 그치고 있다. 노동인력 당 GDP 기여율도 제조업은 1.22%, 서비스업은 1.28%인 반면 농업은 0.35%에 불과하다. 낮은 농업 생산성, 내전 종료 이후 농업 종사자수의 감소와 더불어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매해 1.5%의 노동력이 농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농업은 여전히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11 2014 스리랑카 산업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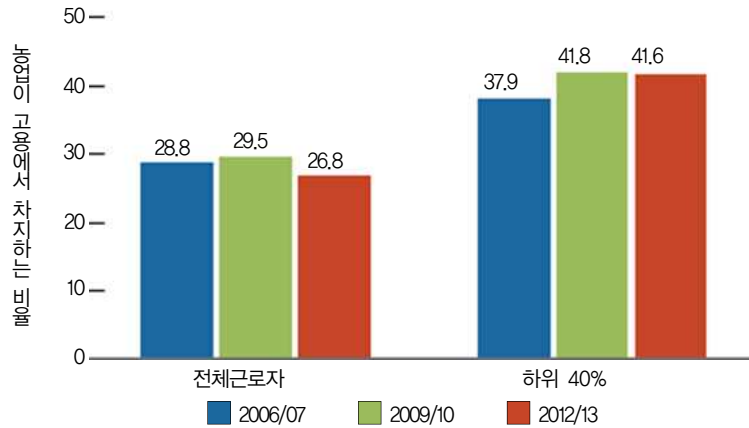
고용상태	전체		분야			
	숫자	%	농업		비농업	
			숫자	%	숫자	%
전체	8,407,212	100	2,222,097	26.4	6,185,115	73.6
피고용인	4,756,400	100	586,734	12.3	4,169,666	87.7
- 민간	1,317,873	100	71,841	5.5	1,246,032	94.5
- 공공	3,438,527	100	514,893	15.0	2,923,634	85.0
고용주	257,646	100	29,024	11.3	228,622	88.7
자영업	2,659,049	100	1,122,778	12.2	1,536,271	57.8
가족사업 종사자	734,117	100	483,561	65.9	250,556	34.1

자료: 스리랑카 통계청 스리랑카 노동현황 조사(2014).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빈곤층이 대다수를 이루는데 특히 내전을 겪었던 북부와 동부지방의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남아있다. 스리랑카의 통계를 보면 2013년 기준 농업이 전체 고용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8%이지만 하위 40%의 경우는 고용비율이 41.6%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도시와 농촌간의 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나는데, 도시지역의 노동자는 2014년 월평균 2만 9,642루피, 중위소득은 2만 3,000루피의 소득을 올린 반면 농촌지역의 월평균 소득은 2만 2,723, 중위소득은 2만 루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²²⁾

그림 7 수입에 따른 스리랑카 농업 종사자 비중

단위: %



자료: 세계은행(2015). Sri Lanka Poverty and Welfare: Recent Progress and Remaining Challenges 바탕으로 저자가 재편집함.

이는 농업 종사자들 대부분이 영세농으로 그들의 수입은 농산물 가격과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스리랑카의 임금체계 때문에 상품가격의 변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차와 식품가격이 상승하였던 2006~2009년은 농촌지역의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농업 종사자의 수가 다시 증가한 바 있다. 특히 2009년 차 가격이 50%이상 상승하면서 임금위원회는 다른 분야의 최저임금을 유지한 반면 농업의 최저임금은 크게 상승시켰다. 그러나 농업 근로자들의 경제상황이 열악한 만큼 외부의 가격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농촌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3.2. 스리랑카 농업정책 동향

3.2.1. 농업정책 관할부서

스리랑카 농업 전반과 식량안보 정책은 스리랑카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에서 다루고 있다. 산하에 국가식량진흥위원회, 농업수출부, 농업연구정책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있으며 스리랑카수출개발위원회에서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고 있다. 농작물 생산 목표치를 관리하기 위해 농업 통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와

22) 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 2014. Sri Lanka Labour Force Survey Annual Report 2014.

관련된 통계는 국가 통계청(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 DCS)에서 수집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주요 작물의 생산과 판매촉진을 위해 코코넛개발청(Coconut Development Authority), 코코넛경작위원회(Coconut Cultivation Board), 코코넛연구소(Coconut Research Institute), 차연구소(Tea Research Institute)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설립되어 정책연구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농산물과 식품의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보호원에서, 스리랑카 표준위원회(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SLSI)가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표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적합성평가인가위원회(Sri Lanka Accreditation Board for Conformity Assessment)에서 개인과 업체에 대한 적합성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3.2.2. 농업정책의 변화

스리랑카는 국가 농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단독 농업정책이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되게 시행되었기보다 정권과 상황에 따라 변한 성향을 띤다. 과거 정책들은 식민지시절부터 중심이 되어온 수출지향적 플랜테이션 농작에 집중하여 쌀, 옥수수 등 곡물 생산을 제한하여 식량안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또 내전으로 인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으며 좁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플랜테이션 작물 외에 시장성이 높은 농산물 생산이 확대되지 못해왔다.

독립 이후 스리랑카는 1958년 쌀 경작지법을 제정하여 소작농들의 소작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외에 특별한 농업 정책이 부재한 상태였다. 1972년에는 토지개혁법을 통해 1인당 토지 소유 한도를 50에이커까지 제한하였으며 플랜테이션 농장 국영화를 실시하였다. 이 법은 현재 다수의 영세농가로 구성되어 있는 스리랑카의 농촌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1977년 마하웰리 개발촉진프로그램(Accelerated Mahaweli Development Programme)을 통해 마하웰리강 주변의 대규모 경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영기업이 운영하던 플랜테이션 농장들은 1992년 막대한 손실과 재정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24개의 기업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었으며 1995년에는 국영화를 포기하고 농장의 소유권을 기업에 판매하였다.

195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스리랑카 정부는 수입대체 정책을 채택하였고 농업 정책 또한 대체작물의 경작을 통한 식량확보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1970년대 정부가 대부분의 식품수입을 금지하며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1977년 스리랑카 정부가 자유화정책을 택하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자유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1996년에는 큰양파와 칠리, 감자 수입 라이선스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적양파의 수입은 전면금지하였으며 35%의 관

세와 20%의 식품수입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스리랑카 정부는 식량안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농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관세와 허가제도를 통해 제한적인 수입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와 남아시아지역연합호혜무역협정) 체결에도 변하지 않아 농산물 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여타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스리랑카 정부 또한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비료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1960년대부터 제공된 비료 보조금정책은 1989년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1989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1994년 스리랑카 정부는 비료보조금 제도를 재개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²³⁾

표 12 스리랑카의 농업정책 변화

연도	정책	주요목표
1948	• 가격보장제 (Guaranteed Price Scheme)	• 쌀 가격을 보장하여 쌀 생산 확대
1950~1970년대	• 6개년 국가개발계획(1951) • 6개년 투자프로그램(1954) • 10개년 개발계획(1959)	• 쌀 경작지 확대와 관개 인프라 개발 • 생산성 향상 • 농부들을 위한 금융기관, 경작기관 설립 • 토지, 소작법 개정 • 생산보조금 지급
1962	• 비료보조금정책	• 비료사용 확대를 통한 생산확대와 농업 안정
1984	• 국가농업식품영양전략	• 쌀, 우유, 설탕, 생선 등 주요 식품 자급자족 • 농업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균형 달성 • 농업 개발을 통한 직업창출 • 국민 영양상태 개선
1986	• 농업자금대출계획 (New comprehensive rural credit scheme)	• 소규모 농가에게 신용지원 확대 • 중앙은행이 대출 손실 50%까지 보증 • 흉년시 이자율 감면
2005	• 2006-16 10개년 개발정책 (Mahinda Chintana)	• 북부 내전지역에 관개시설 확대 • 농산물 수출지역 설립 등 마케팅 확대
2006	• 국가플랜테이션산업정책 (National Plantation Industry Policy)	• 플랜테이션산업을 친반공성장 엔진으로 전환 • 민간협력 확대 • 수익성 다변화 • 친환경 경작
2010	• 개발정책프레임워크 (Mahinda Chintana -Vision for the future)	• 식량안보 확보 • 농업현대화 • 배송효율 증대 • 개량종자 사용과 수자원 관리

자료: G.M. Henegeedara(2002), 스리랑카 재정기획부(2006, 2010).

23) Saman Kelegama, 2004, Economic Policy in Sri Lanka: Issues and Debates, Sage publication.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현재 스리랑카 국토의 20.7%가 농경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3.4%는 산림이며 도시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농경지 비율에 비해 생산량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식량안보와 농업에 우선순위에 두고 국가토지사용정책(National Land Use Policy 2005)을 세웠다. 동 정책은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와 수입 창출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시에만 농지의 다변화 장려 △농지 활용에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보전방법 채택 △한계 토지와 미경작지 개발을 목표로 세웠다. 이 정책을 통해 토지 분배와 농토의 전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농업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표 13 국가토지사용정책의 스리랑카 국토 사용현황

사용목적	면적(헥타르)
농업	2,605,647
도시	29,353
산림, 보호지역	2,000,000
저사용(underutilized) 토지	728,800
수자원(저수지, 천, 관개)	585,300
농업불가 급경사지	380,000
황무지	77,000
해발 1600미터 이상 고지대	76,400
망그로브, 습지	70,000
합계	6,552,500

자료: 스리랑카 국토부(2005).

농작물 생산이 증대되었음에도 식량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는데, 국내 식량생산 장려를 위한 국가 캠페인(National Campaign to Motivate Domestic food Production 2007-2010)은 스리랑카 정부의 식량안보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플랜테이션작물 위주의 농업과 자연환경 변화로 국내 식량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한 캠페인이다.

가정, 학교, 사무실, 군대, 정부기관 등에서 텃밭을 길러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하자는 정책으로 농업장려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목적에 적합한 작물로 쌀, 옥수수, 양파, 콩, 바나나, 망고, 감자, 토마토, 생강 등의 작물을 지정하여 전 국민적 농업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미사용 농지 개간과 유기농법을 장려하였으며 농사와 수확,

시장 판매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농업정책의 목표와 동향은 국가개발계획에서 더 뚜렷이 나타난다. 스리랑카는 해외원조를 받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 하에 2002년과 2004년, 2006년에 각각 빈곤감소 전략 계획(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을 세웠다. 1차, 2차 전략은 기간이 짧게 선정되어 농업 발전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제3차 빈곤감소전략계획인 2006-2016 10개년 국가개발계획(National Policies 1. Mahinda Chintana- Vision for a New Sri Lanka: The Ten Year Horizon Development Framework 2006-2016)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국가 전반의 고른 성장을 위해 수입이 낮은 농촌의 수입 증가와 식량안보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의 직접적인 시장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영세농 위주의 농업을 상업적으로 전환하며 중장기적 농업 생산량을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²⁴⁾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작물의 재배 확대를 위한 정책도 존재하는데, 단일 작물 생산을 위한 정책으로 2011-2016 국가 코코넛 개발계획(Kapruka Navodawa: National Coconut Sector Development Plan 2011-2016)이 대표적이다. 2011년 코코넛부와 자나타주 개발부(Ministry of Coconut Development, Janatha Estate Development)가 2011년 세운 정책으로 코코넛 생산량을 2016년까지 3억 6,500만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워 국내 수요를 맞추고 코코넛 경작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3.2.3. 농업정책 연왕

과거 정부들의 농업정책은 정권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식량안보와 농업 인프라 개발을 통한 생산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식량안보는 여전히 스리랑카 정부의 우선순위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또한 화두가 되고 있다. 2012년 스리랑카는 농업부와 환경부는 2012년 농업의 청정생산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policy and strategy on cleaner production for agriculture sector)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생태학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농업시스템을 구축,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농업 확산을 통해 식량 확보는 물론 농가의 소득을 확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공급망과 가치사슬 관리에서 청정생산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농업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농약사용, 환경오염 등의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다.

24) FAO. 2011. Articulating and mainstreaming agricultural trade policy and support measures.

현재 플랜테이션 작물의 원료 수출 위주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농산물 가공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업 진흥을 위해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이 농업과 농산물가공업 투자자에게 5년간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을 면세해주고 있다. 대규모 투자일수록 더 큰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륙지방세입위원회(Department of Inland Revenue)에서도 비슷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시리세나 대통령이 취임 후 스리랑카 정부는 농업을 국가개발 우선순위에 두고 증가하는 농업 수요에 대응하며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산물의 시장성 확보를 중점에 두고 전통적인 농업방식을 보전하면서도 해외시장의 기준에 맞는 농업기술과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 정부는 5개년 국가농업정책을 개발 중으로 전자농업(e-agriculture)과 농산물 시장개발, 비료 규제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장기적인 농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²⁵⁾ 또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2016-2018 국가식량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단위별로 계획을 실행 중이다.²⁶⁾

국가 식품생산프로그램(Food Production National Programme 2016 - 2018)은 식량안보와 농촌의 안정적인 수입창출, 환경보호,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목적 3개년 프로그램이다. △곡물 재배를 통해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며 △식량 재고의 관리 △친환경 농업 도입 △생산자에게 마케팅 방안을 소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역단위 별로 생산량과 생산성 향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가 전자농업정책전략(National e-Agriculture Strategy)을 필두로 스리랑카 정부는 농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5년부터 FA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의 협력을 통해 전자농업전략을 개발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자농업전략 가이드는 요약본만 발표된 상태이며 방법론과 실행전략을 포함한 국가 전략은 아직 개발 중이다.

소규모 농가 구성비율이 높아 시장접근성이 떨어졌던 스리랑카 농촌이 생산과 판매에 ICT를 활용하여 전자농업을 실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이를 통해 농업과 시장에 대한 정보 획득, 직접 거래 뿐만 아니라 날씨와 원거리감지기(remote sensing) 등 위성장비를 통해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생산측면에

25) Oxford Business Group(2015.7.8). Sri Lanka targets agricultural growth.

26) Colombo Page(2015.10.5). Sri Lanka to launch a National Food Production Plan today.

서는 인력과 비료사용 관리부터 생산 모니터링과 평가 등에, 생산 후에는 판매 신용관리와 상품 추적, 가격정보 등에 IT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스리랑카는 2014년부터 휴대전화에 쌀시장공급시스템을 도입하여 쌀 가격의 안정화와 공급부족을 해소를 꾀하고 있다.

3.3. 스리랑카 농업 전망

세계 식량위기의 충격으로 스리랑카 정부는 자급용 농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정부예산에도 반영되어 2015년 쌀 농사 장려를 위해 정부가 농부들로부터 고정가격으로 직접 구매 후 재판매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유기농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향후 스리랑카의 주력 품목인 플랜테이션 작물 외에도 농산품이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치가 안정되어 농산물 생산에 장애물이 사라진데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5개년 농업개발 계획 등 농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연구, 발표하고 있어 스리랑카의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다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스리랑카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업장려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또한 정부와 합작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서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해외 유기농산물 시장을 겨냥하여 친환경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미가공 농산물 수출에서 벗어나 농산물 가공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HACCP과 ISO 등 해외시장 기준에 맞는 인증을 획득하여 농업의 수익창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농업 생산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주력 플랜테이션 작물 위주에서 향신료와 원예, 곡물 등 다양한 작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의 종류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의 농산물 유통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저장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당분간은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작물과 국내 식량자급을 위한 곡물 위주의 농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도로와 교량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농업의 상업화가 인프라 확대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외교부. 2014. 스리랑카 국가개황. 외교부.
- 한국수출입은행. 2016. 스리랑카 국가개황.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2016. 스리랑카 국가신용도 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 Asia Development Bank. 2015. *Interim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Sri Lanka, 2015-2016*. Asia Development Bank.
- Asia Development Bank. 2015. *Organic agriculture and post-2015 development goals: Building on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poor farmers*. Asia Development Bank.
- Asia Development Bank. 2015. *Sri Lanka Development effectiveness brief*. Asia Development Bank.
- Asia Development Bank; UKAID. 2014. *Assessing the Costs of Climate Change and Adaptation in South Asia*. Asia Development Bank.
- Central Bank of Sri Lanka. 2015. *Annual Report 2014*. Central Bank of Sri Lanka.
- 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 2014. *Economic Census 2013/14*.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 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 2014. *Sri Lanka Labour Force Survey Annual Report 2014*.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 Ecoomy Next. 2016.1.10. "Sri Lanka's agricultural productivity is surprisingly low: Hausmann"
- FAO. 1993.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FAO.
- FAO. 2011. *Articulating and mainstreaming agricultural trade policy and support measures*. FAO.
- FAO. 2011. *Case studies on policies and strategies for sustainable soil fertility and fertilizer management in South Asia*. FAO.
- FAO. 2012. *Agricultural cooperatives: Key to feeding the world*. FAO.
- FAO. 2012. *Food price spikes, increasing volatility and global economic shocks: Coping with challenges to food security in Asia*. FAO.
- FAO. 2015. *Sri Lanka increases paddy procurement price and reduces wheat flour price*. FAO.
- FAO. 2015. *Status of the world's soil resources*. FAO.
- G.M. Henegedara(2002).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the Paddy Sector in Sri Lanka :An Overview*. Sri Lanka Journal of Agrarian Studies 10(1)
-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2014. *India-Sri Lanka Fishermen Problem: Some Solutions*.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 Ministry of Agriculture. 2012. *National policy and strategy on cleaner production for agriculture sector*. Ministry of Agriculture.
-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2010. *Sri Lanka Development Policy Framework. The Emerging Wonder of Asia Mahinda Chintana: Vision for the Future*.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2015. *Mabinda Chintana: Vision for a new Sri Lanka-A ten year horizon development frame work 2006-2016 discussion paper*.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2013. *Poulation Atlas of Sri lanka 2012*.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2014. *Sri Lanka labour force survey 2014*.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 Ministry of Plantation Industries. 2006. *National Plantation Industry Policy Frame work* Ministry of Plantation Industries.
- Mirror Business. 2015.6.24. "Economic reforms cannot ignore Sri Lanka's farmers."
- Saman Kelegama. 2004. *Economic Policy in Sri Lanka: Issues and Debates*. Sage publication.
- The New York Times. 2012.9.4. "Two Hungry Nations Collide Over Fishing."
- World Bank. 2008. *Sri Lanka Seco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and joint IDA_IMF staff advisory note*. World Bank.
- World Bank. 2012. *Sri Lank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Y 2013-FY2016*. World Bank.
- World Bank. 2015. *Sri Lanka country snapsbot*. World Bank.
- World Bank. 2015. *Sri Lanka Poverty and Welfare: Recent Progress and Remaining Challenges*. World Bank.
- World Bank; CIAT. 2015. *Climate-smart agriculture in Sri Lanka*. World Bank.

참고사이트

-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 캐나다 농업부 (<http://www.agr.gc.ca/eng/industry-markets-and-trade/statistics-and-market-information/by-region/asia-pacific/agri-foods-sector-profile-colombo-sri-lanka/?id=1410083148671>)
- 세계식량기구 (www.fao.org/home/en/)
- 스리랑카 농업부 (www.agrimin.gov.lk)
- 스리랑카 농업수출청 (www.exportagrdept.gov.lk/web/)
- 스리랑카 농업청 (www.doa.gov.lk/)
- 스리랑카 수출개발청 (<http://www.srilankabusiness.com/>)
- 스리랑카 재정부 (www.treasury.gov.lk/)
- 스리랑카 중앙은행 (www.cbsl.gov.lk/)
- 스리랑카 통계청 (<http://www.statistics.gov.lk/agriculture/index.htm>)
- 아시아개발은행 (www.adb.org/)

외교부 (www.mofa.go.kr)

한국국방연구원 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www.kida.re.kr/woww/)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CEIC (<https://www.ceicdata.com/>)

Disaster Management Centre(http://www.dmc.gov.lk/index_english.htm)

KOTRA (www.globalwindow.org)

Sri lanka Disaster Knowledge Network (http://www.saarc-sadkn.org/countries/srilanka/hazard_profile.aspx)

Knoema USDA International Agricultural Productivity (<https://knoema.com/USDAIAP2015/us-da-international-agricultural-productivity-2014>)